



협회 추진방향

- 결의대회 추진위 구성, 8월23일 전후 범 양육인 대회 개최 -

본회는 지난 5월24일 뉴질랜드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국내 농가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힐 절편녹용 수입압력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뉴질랜드 대사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말로 우회, 절편녹용 수입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이후 6월20일 본회로 보내온 뉴질랜드 대사의 반박자료에서도 자국 절편녹용의 수출을 원한다는 내용과 WTO 원칙을 강조, 공격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수입을 관철시켰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더 이상 대화로서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는 8월23일을 전후로 대규모 범 양육인 결의대회를 개최, 실행행사를 통해 국내 양육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을 봉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본회에서는 지난 6월20일 양육관련 단체장 회의를 개최, 향후 실시될 범 양육인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추진위원장에는 한국양육협회, 한국양육농협, 한국사슴산업연구회 등 3개 단체장을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하고 협회장이 상임위

원장으로서 행사를 주관하기로 합의했다.

부위원장으로는 각 단체별 임원 3명씩을 추천, 공동 부위원장으로 임명키로 했으며 고문은 단체별로 원로 약간명씩을 추천, 약 20여명을 위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각 단체의 임원을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협회 지회장,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지도자급 양육인들로 추진위원을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농림수산위원, 농민단체장, 축산단체장, 농축산언론사 대표, 대학교수 등을 명예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총 200여명의 추진위원을 구성, 범 양육인 결의대회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관련 기본사항도 합의함으로써 양육인 결의대회를 보다 구체화시켰다.

결의대회 장소는 서울에서 실시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짓기로 했다. 행사내용은 추진위원장 및 국회의원, 농축산단체 대표 등의 연설과 그동안 절편녹용 수입 진행상황의 경과보고, 성명서 및 대국민 호소문 발표, 도보행진, 뉴질랜드 대사 및 정부당국자 면담 등을 진행키로 했다.



▲ 지난 5월24일 실시된 뉴질랜드 대사와의 면담. 뉴질랜드 측은 절편녹용 수입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궐기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인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뉴 절편녹용 수입의 부당함을 외칠 때 여론을 이 해시킬 수 있고 여론이 움직일 때 다수의 국민들이 동감하기 때문이다. 본회에서는 일단 총 행사인원을 1천5백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행사 사전홍보로 전 양록인 대상 참가 독려문을 2회 발송기로 하고 양록 및 농축산 전문지 대상 기자회견을 실시기로 결정했다. 또한 보도자료 배포, 기고, 광고 등 모든 홍보수단을 총 동원,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양록인의 참가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행사 당일에는 신문, 방송 등에 사전 취재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당일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벤

트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에는 차량준비, 식대, 행사경비 등 비용도 만만치 않다. 비용마련을 위해 양록관련 3개 단체는 단체별 100만원 이상씩 기본 출현을 약정했으며 7월 중에 실시될 추진위 전체 회의시 추진위원 개별 약정으로 모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범 양록인 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 1차 기금조성을 5천만원으로 한다는 복안이다. 모인 기금은 금번 집회를 포함, 향후 뉴질랜드 절편녹용의 지속적인 수입저지를 위해 사용되게 된다.

현재 8월23일 전후로 잡혀있는 궐기대회 날짜는 추진위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며 궐기대회 기본 방향 확정 관련 보도자료도 곧 배포될 예정이다. **한국양록**